

'부채 200조' 한전, 취약계층 지원도 줄였다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장애인 복지시설 승합차 지원 등 68억 감소 허성무 민주당 의원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포기한 조치" 비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재정 건전화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금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재정건전화계획 시행 이후 기부금 및 출연금 절감 세부내역'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22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한 이후 다문화가정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68억원 가량 줄였다.

예산 감축폭도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 대비 절감액은 지난 2022년 28억7000만원이었던 반면, 2023년 39억4000만원으로 37.3% 증가했다.

한전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습지원 ▲청년 지방창업 지원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 및 자녀교육 ▲안전 취약지역 태양광가로등 설치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전용 이동승합차 지원 ▲해상풍력에너지지역 생태계 복원 ▲장애인 디지털 재활기기 지원 ▲초등학생 에너지스쿨 지원 ▲전통시장 노후전기설비 교체지원 사업 등 10개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중단·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건전화를 내세워 지역 대표적 인재 양성 요람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에 대한 출연 규모도 대폭 줄였다.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래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확보에 동력이 될 학생 및 교수진 연구비도 삭감한 것이다. 한전의 쉼터 출연금은 지난 2022년 728억9600

만원 승인됐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6억 5600만원만 실제 집행했다.

또 지난해 역시 1250억원 규모의 출연금 승인을 받았으나, 707억6600만원만 실제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이 취약계층 지원 및 쉼터 출연금 등 지출을 줄인 데는 재정 위기가 원인으로 꼽힌다.

한전은 지난 2021년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국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반면, 전기요금은 동결되면서 지난해 연결기준 총부채 202조원, 누적적자는 43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만 4~5조원 규모로 간축재정에 나선 것이다.

한전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축소 등에 대해 직원복지도 줄이면서 재정건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직책에 따라 임금인상분을 자체적으로 반납하고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간부와 직원들의 경영평가 성과급도 반납하는 등 자구 노력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임금인상분은 임원 및 1~2직급은 전액, 3직급은 50%를 반납했고, 경영평가 성과급도 1급(100%), 2급(50%), 3급(30%), 4급 이하(20%) 등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성무 의원은 "한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동승합차 지원 등의 기부를 중단했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쉼터 등의 출연을 중단한 것은 공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포기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고구마, 바다 건너 중동 UAE 수출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4일 영암군 농업회사법인 '담아' 본사에서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는 한국산 고구마의 첫 해상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왼쪽 네번째부터 권오영 aT 수출식품이사, 우승희 영암군수, 김영후 담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선적식 기념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aT 제공>

'돈맥경화' 한전, 전력구입비 결제 늦추려다 퇴짜

규칙개정위원회, 전력거래대금 결제기한·일정 개정안 심의보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재정난을 이유로 전력 발전사에게 지급할 전력구입비 결제일을 늦추고 결제 주기를 한전 편의성에 맞춰 바꾸려다가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 업체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규칙개정위원회는 최근 '전력거래대금 결제기한 조정'을 위한 규칙개정안과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정' 조정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심의보류했다.

해당 개정안 2건은 한전이 제안한 규칙개정실무 협의회를 통과한 안건으로, 재무위기를 겪고 있는

한전이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결제기한 조정안도 한전이 전력구입비를 한국전력거래소로 입금하는 시기를 하루 늦추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173억원 가량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일정 조정안도 한전이 매월 4회(4·12·20·25일)로 나눠 결제하고 있는 전력구입비를 매월 3회(8·21·28일)로 줄여 전기요금을 거두는 시기와 전력구입비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안건이다.

한전은 매월 22일 전기요금의 절반 가량을 거두

뒤 결제일별로 나눠 지급하다 보니 수입-지출일 차이로 단기사채를 더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게 한전측 입장이다.

전력거래소는 그러나 발전사의 경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에서 보류시켰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가 가스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연료비 결제일 등 조정도 필요해 발전사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들은 이러한 점 등을 들어 단계별 리스크,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거치는 게 우선이라며 만장일치로 심의를 보류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켄텍,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심포지엄 개최

31일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 100명 참석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오는 10월 31일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용산'에서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혁신 연구센터'와 '연료전지 발전기술 융합대학원' 공동 주최로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가 주관해 열린다.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청정수소와 암모니아를 활용한 기술 선점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에너지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관련 산업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 최근 주요 정책과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선박해운플랫폼 연구소와 고등기술연구원, 쉼터이 실증 중심의 최신 연

구개발 결과와 개발전략도 발표한다.

김창희 쉼터 교수는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분야 기술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핵심기술로 각종 정책과 기술 개발에서 엿박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심포지엄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에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빛가람 10년' 소통·화합 한마당... 빛가람 페스티벌

19~20일 빛가람호수공원... 공연·체험존 등 프로그램 다양

전남도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인 '제10회 빛가람 페스티벌'을 19~20일 빛가람혁신도시 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빛가람 10년, 추억을 담다'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혁신도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며, 지역 상생발전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으로 치러진다.

첫날인 19일 개막식에 앞서 이전 공공기관 오케스트라 공연, 청소년 케이팝(K-POP) 댄스대회, 나주시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전남도, 나주시, 공공기관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진행되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광주시립교향악단 공연, 나주시립국악단 공연, 통기타 공연(다복

적실), 클래식 공연(빛가람 체임버 오케스트라), 인기가수 공연(먼데이키즈)이 열릴 예정이다.

둘째 날인 20일엔 빛가람동 주민의 마을합창단과 장구난타 공연, 이전 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 도립국악단과 나주시립합창단 공연, 전문 댄스팀 공연, 통기타 공연(로맨틱 문)과 클래식 공연(라리아상별), 인기가수 공연(한동근) 등 문화공연을 향유할 기회가 적었던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을 선보인다.

또 어린이 비중이 높은 혁신도시 특성에 맞춰 준비한 어린이 놀이터(에어바운스)와 체험존, 힐링캠핑존, 푸드존 등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지역 주민 30여 명의 셀럽이 참여한 플라멩코와 공공기관 연계행사로 진행한 한전KDN 사회적



10.19(토) 먼데이키즈 10.20(일) 한동근

경제기업 상생마켓(31개)이 함께 진행돼 공공기관과 지역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장한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페스티벌 참여자 모두 소중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쌓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남도는 광주시, 나주시와 함께 빛가람혁신도시의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농협 서광주농협. Includes NH Bank logo, 'zgm.the pay' card,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